

## 수출신장 및 국위선양에 매진 유럽, 남미의 해외거점 확보로 수출 전념



오 필 제  
울성정공 대표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한국포장기계대상에 울성정공 오피제 사장이 수출판매 부문에 선정됐다.

오피제 사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 울성정공이 수출판매 부문에 수상하게 된 점 한국포장기계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위선양 및 포장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장기기 전문제조업체인 울성정공은 1992년 12월에 설립되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견실한 기업이다.

오 사장은 수입에 의존하던 90년대 초반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최고의 제품으로 국산제품의 저변확대와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으로 관련분야에서 넘버 원(NO.1)이 되고자 울성정공을 설립, 오로지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다.

울성정공은 90년대 초반 포장기기의 획일적이고 일변도의 기능과 외형을 국제적인 흐름과 고객의 요구에 따른 다양성과 기능성 그리고 디자인을 강화하여 포장기기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켜 꾸준한 기술개발로 내수시장의 안정화를 이룩했다. 이를 토대로 울성정공은 1996년 미국의 시카고 PACK 참가를 기점으로 세계시장 개척에 주력하게 된다.

같은 해 울성정공은 중동지역의 오만과 요르단에 수평형 삼면포장기 수출을 시작, 1997년에는 미국과 그리스를 포함하여 올해 폴란드와 러시아까지 세계 20여개국에

## “제품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흐름 파악 중요”

걸쳐 수출을 하고 있으며, 각국에 현지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다.

수출판매를 하면서 제품의 기술력과 세계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오필제 사장은 2002년 10월 해외수출의 극대화를 위하여 중국 상해(대지 1,600평, 건평 450평) 공장과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수평형삼면포장기와 밴드실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중국내수와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장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해외거점의 안정적인 확보와 제품공급으로 을성정공은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의 활성화가 되어 태국과 대만, 일본 등 동남아 시장에 수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중국현지의 포장관련기기 전시회 등에 매년 참가, 제품홍보와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바이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출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을성정공의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자동삼면자동포장기, 컵씰링기, 반자동수축포장기, 밴드실러 등이 있으며 특히 삼면포장기와 용기포장기는 자동포장기기 시장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기인 1994년에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용기 포장기기는 미국의 현지 에이전트 및 세계적인 포장관련 다국적기업인 PPI社와의 제휴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Mold Change Type과 Wash Down의 기계는 세계의 어느 업체와 비교해도 성능과 품질,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국가의 바이어와 활발한 접촉으로 수출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유럽, 남미의 해외거점의 확보로 수출 판매에 더욱 전념할 오 사장은 Sino Pack, 방콕 식품/포장기자재전, Pro Pack, 미국 Chicago Pack Expo, Tokyo Pack, 중국북경포장기기 전시회 등 세계적인 유명전시회 참가해 을성정공 브랜드인 “PROPACK”을 널리 알려 수출신장과 국위선양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에서 을성정공의 “PROPACK”이 “Only 1 & No.1”이 되는 그날을 위한 노력에는 쉽표가 없을 것이라는 오필제 사장. 항상 겸손함과 더불어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그리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을성정공의 미래는 그래서 더욱 밝기만 하다. ☞

이한얼 기자